

## 오륙도 칼럼



이 춘 성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세계적 경제대란이 서서히 호전되고 우리 나라도 전 국민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복지현장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접하며 고민하는 복지사업관계자들이 갖는 한

계에 가슴이 답답하다. 해가 바뀔다고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연말연시에 저소득층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깊어만 간다. 이들 모두는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보듬고 가야 할 동반자들이다.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이란 말이 있다. '하나는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으로 저마다 피어나는 하나하나에는 전체가 담겨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얼마 전 법정스님이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이라는 법문집을 출간하였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자 진리의 세계라고 역설한다. 책 내용 중 일부

## 사랑나누기 행복플러스

를 발해해 보면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이웃에게 덕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밀접한 욕심을 가지고 도 무가치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라야 합니다. 그 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꽃처럼 새롭 게 피어납니다." 가슴을 울리는 법정스님의 영적 메시지이며 정량한 축비 같은 말이다.

### 1%나눔 100%행복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이

웃의 불행이 나의 불행인 것이다.

올해 공동모금회 설문조사에 '당신의 1%나눔, 누군가의 100%행복'이다. 우리 각자의 적은 정성이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지역의 한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 지역의 저소득층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그 단체는 매년 연말이면 모자친 회비로 약간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송년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뜻있는 송년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시작 단계에서는 반신반의 하던 회원들이 기부송년행사를 하고 나서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깝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앞으로는 매년 이러한

송년회로 방향을 바꿔야겠다. 연말에 가족이나 지인들끼리의 송년 모임 경비를 아껴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고, 돈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심시일반 정신 퇴세겨야

코흘리개 유아들, 초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기부 동참, 길거리에 버려진 강뿔이나 휴지를 모아 푼푼히 아껴 두었던 꼬깃꼬깃 지폐 몇 장을 들고 와서 쑥스럽게 내놓으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어느 어르신의 눈물겨운 정성에 울컥하는 진한 감동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선진국의 바로미터는 자원봉사를

그런데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후배들에게 재활용하도록 대물림하거나 버릴 경우 폐휴지로 처리하여 그 돈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왔으면 한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 대물림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교과서에는 해마다 사용했던 학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고 책에는 낙서가 거의 없이 깨끗하다고 한다.

내년에 다른 학생이 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학교가 독특한 점은 학생들이 책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겹표지를 비닐로 싸도록 돼 있으며 책장은 겹지 못하게 훼손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책 한 권을 5년씩도 쓴다고 한다.

우리도 자원낭비를 막고 학부모들의 교재비용도 덜어줄 수 있도록 프랑스의 대물림 방식을 적극 참고했으면 좋겠다.

우도형(문현3동)

### 횡단보도 과속차량 단속요망

감만1동 8부두(군부대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든다.

특히 저녁시간대 그 곳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과속으로 지나간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저의 앞으로 "생~" 하고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8부두(군부대입구) 횡단보도의 과속차량과 신호위반차량을 단속해주시기 바란다.

### ■ 살며 생각하며

## 할머니 급식도우미



이옥혜(우암2동)

60대라고는 하지만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일지라 하며 친구들은 말했지만 그래도 나는 복지관을 찾아갔다.

그래서 어휘도 낯선 급식도우미 할머니가 됐다. 아침 10시에 집을 나서면 오후 3시나 돼야 집에 오고 마을버스는 두 번, 시내 버스는 3번을 타고 40~50분이 걸려 도착하는 학교지만 그래도 1·2학년 아이들의 점심을 내 손으로 나눠주다 보면 피곤은 싹 사라지곤 한다.

내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덜어주세요", "할머니 조금 더 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일이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을 수 없다.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학교는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 일터로는 그만이다. 게다가 학생수도 많지 않아 남는 교실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 놓고 아이들도 순수하며 맑아 학교에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

특히 영양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일 힘든 일이 있나 늘 신경 써줘서 고맙다. 처음 입어보는 유니폼과 앞치

마, 모자, 토시, 마스크를 하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는데, 하루 이를 지나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우리일도 끝나 각자 예전 생활로 돌아가겠지만 지난 6개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재밌고 즐겁게 일 하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인생은 60이 아니라 70이란 말이 요즘 대세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노쇠해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며 자신의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깨닫게 된 할머니 급식도우미 생활이었음을 동료들도 모두 느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장년의 활거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던 동년배들의 환한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비록 육신은 늙어 힘들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날마다 새로움으로 충만해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던 그대를 생각하면 눈물나도록 그립다. 개인적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몸소 느끼게 해줬던 할머니 급식도우미 생활이 남은 여생의 큰 밑거름이 돼 자아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말로만 70 청춘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를 생각하고 후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는 사회 원로로서의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던 형님과 아우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선용의

### 1000자 지혜 67

## 욕심

맹수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작은 먹이감이 그 앞을 어슬렁거리며 못 본 채한다.

짐승도 만족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욕을 쓰지 않는가?

옛날 하느님이 모든 동물에게 작은 욕심주머니를 하나씩 주었는데 인간이 보니 주머니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안볼 때 주머니 아래쪽을 잘라버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리 넣어도 차지 않아 가득 채우기 위해 결국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교양서로 많이 읽혔던 몽구(夢求)에 욕심을 경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

송(宋)나라에 한 시골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 툼치막한 옥돌 하나를 주웠다. 그는 바로 옥공(玉工)에게 가서 물었다.

"어때요. 쓸 만 합니까?"  
옥공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옥입니다!"

시골 사람은 생각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제각각 주인이 따로 있어. 이 옥은 나 같

은 소인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분명 군자야!"

시골 사람은 옥돌을 대부민 자한(子罕)에게 바쳤다.

"소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자한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자네는 옥을 보배로 여기고 나에게 가져왔지만 나는 옥을 탐내지 않는 자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귀중한 보배로 생각하네. 어서 도로 가져가게. 만약 자네가 준 옥을 내가 받게 되면 우리 두 사람 다 보배를 잃게 되는 셈일세. 그러니 자기의 보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

노자(老子)는 욕심내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경계하고 얻기 어려운 보배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인은 작은 것도 탐하지 않지만 소인은 작은 것을 탐하고 작은 것에 복속까지 건다고 했다.

속담에 "욕심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다. 욕심이 사나우면 제 몸도 망치고 어떤 나쁜 짓도 하게 된다는 뜻인데 돈이란 물건이든 명예든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패가망신하기 마련이 아닐까?

반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우암1동 성지고등학교를 거쳐 동 일아파트에 다녔던 삼거리가 나온다. 왼쪽으로 가면 감만동, 오른쪽으로 가면 문현동으로 향할 수 있는 도로다. 그런데 문현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곳은 컨테이너차량과 같은 대형차들의 통행량이 많아 아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야간시간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감만동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달리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 때문에 경적을 울리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관련 당국에도 여러번 시정을 원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 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조치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 일대 상존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상훈(우암1동)

### 교과서 대물림 운동을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고교마다 고3학생들의 교과서와 참고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풍선광고 야간단속

무분별한 풍선광고를 단속해달라는 감만1동 남민배님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남구신문 독자의 소리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풍선광고(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행에 방해가 되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구

에서는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7회 154개소에 자진 정비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50여개는 강제수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강주경>

### 현장확인 후 결정

경로당 설립에 대한 문현1동 양반호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집 및 노인복지

### ■시가 있는 풍경

## 바다가 아프다

바다는 아프다고 외마디 소리 지른다.

하얀 거품 내어 뿜으며

내 목을 짓누르지 말라고 몸부림친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돌멩이든 세면용치든 아무거나

다치는 대로 넣고 짓누르니

얼마나 아플까?

바다는 말하네.

이제 그만 끝내달라고

사람들은 알아차릴 듯도 하다가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멈추지 않구나.

바다는 온몸을 흔들면서 떨면서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

바다는 몸부림친다 참을 수 없다고.

온몸이 짓눌려 숨이 가쁘네

이 몸 위에 높고 높은 빌딩숲으로 지눌릴 때

숨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인 즉

이제 바다도 사람도 통곡한다.

숨을 쉬게 해달라고...

우리의 바다를 살려달라고...



정 봉 화

전 시의원·용호1동

### 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교 실	요 일	시 간	수업장소	수업 기간	점수 기간
수 영 수 영	A반		12:00~12:50	월·수·금	2010. 1. 01 ~ 2009. 12. 28
	B반		13:00~13:50		
	C반		14:00~14:50		
	D반		12:00~12:50		
	E반		13:00~13:50		
	F반		12:00~12:50		
태 권 도 교	A반		10:00~11:30	월·수·금	2010. 1. 01 ~ 2009. 12. 28
	B반		11:30~13:00		
	초급		09:30~11:00		
	중급		11:00~12:30		
	A반		09:00~10:00		
	B반		10:00~11:00		
요 가	C반		11:00~12:00	월·수·금	2010. 1. 01 ~ 2009. 12. 28
	D반		15:00~16:00		
	E반		09:30~10:30		
	F반		18:30~19:30		
	초급		09:00~10:00		
	B반		10:00~11:00		
노 년 인 생	A반		09:00~10:30	월·수·금	2010. 1. 01 ~ 2009. 12. 28
	B반		10:30~12:00		
	C반		13:00~14:30		
	D반		14:30~16:00		
	E반		19:00~20:30		
	F반		19:00~20:30		

※ 접수처 : 남구생활체육회 ☎ 644-7330, 607-4385